**요시다구치 등산로**

요시다구치 등산로는 후지산의 북쪽 등정할 때 가장 인기 있는 등산로입니다. 등산객 대부분은 후지 스바루 라인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등산로의 고고메(5부 능선, 해발 2,305m)까지 간 후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보다 사람의 기척은 적지만 역사적인 등산로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추천하는 루트는 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에서 시작해 후지산 고고메 부근의 일반적인 등산로로 합류하는 요시다구치 등산로의 산기슭 부분입니다. 한가로운 분위기와 풍부한 녹음 등 흥미로운 장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나카노차야 - 경계**

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에서 1시간 조금 넘게 걸으면 최초의 중계 지점인 나카노차야에 다다르게 됩니다. 나카노차야는 신사와 등산로의 원래 시작점인 우마가에시(아래 참조)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흐르는 계곡은 과거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로 여겨지는 삼도천에 비유되었습니다.

이 차야(찻집)에서는 주말이 되면 경단과 ‘요시다 우동’이라는 유명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이곳에는 17세기에 성립된 후지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민간 신앙 후지코의 순례자들이 지난 수세기 동안 세운 다수의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후지코 신도가 33번째 등정을 달성해 문자 그대로 ‘선두를 가는 자’라는 뜻의 ‘센다쓰’가 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센다쓰는 정신적 지도자이자 등산의 안내인으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마가에시 - 입산**

1시간 정도 등산로를 더 오른 곳에 있는 다음 찻집인 오이시차야는 황철쭉으로 유명합니다. 그 후 30분을 더 걸으면 ‘말이 되돌아 가는 장소’라는 의미의 우마가에시에 도착합니다. 우마가에시는 해발 1,450m 지점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후지산의 풀이 우거진 경사면이 밀림으로 바뀌고 그 경사 또한 말이 오르기 힘들 정도로 가팔라집니다. 그래서 우마가에시보다 더 높은 곳까지는 모든 짐을 사람의 손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우마가에시의 이시(돌)도리이 양쪽에는 후지산의 수호수인 원숭이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후지산에는 원숭이가 살지 않지만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후지산이 안개 속에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탄생한 것이 경신(庚申)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신년에 후지산을 오르면 특히 운수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때는 많은 등산객이 후지산을 방문합니다. (다음 경신년은 2040년입니다. )

도리이 바로 앞에는 순례자들이 신성한 산에 발을 들여놓기 전 속세의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몸을 정화했던 ‘미소기쇼(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목조 건축물은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 노후화되면서 약 60년 전에 붕괴되었지만 표지가 그 건물이 있었던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명소가 요시다구치 등산로의 저지대를 따라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후지산을 등정하는 것은 1872년까지 정식으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멀리서 기도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니고메(2부 능선, 1,700m)에는 당시 이곳이 여성이 오를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지점이었음을 알려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후 오무로센겐 신사가 호숫가로 옮겨지기 전에 존재했던 곳을 지나 고고메(5부 능선)에 다다릅니다. 이 루트는 4월 후반부터 5월 전반까지 후지벚꽃과 삼엽철쭉으로 채색됩니다.

우마가에시에서 고고메까지의 소요 시간을 합하면 3~4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 가볍게 산행을 즐기고 싶으신 분은 고고메까지 버스를 탄 후, 산 정상까지는 가지 않고 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까지 도보로 하산하는 5~6시간의 비교적 쉬운 루트를 추천합니다.